

테마칼럼

인문과학의 문화

이세상 e세상

읽고쓰고에 관해

경제로 세상보기

문화산업에 힘을 보태자



이상길

“ 가을-이 좋은 계절, TV를 끄고 시원한 바람, 화창한 햇살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정 어렵다면 아쉽더라도 영화관에서 직접 표를 구입, 우리나라 영화를 즐기며 우리 문화산업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

”

지난달 미국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사 50여 곳이 자신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단 유통시켰다며 1만여명의 한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 와중에 국내 청소년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말까지 있었다. 인터넷 접속 10대 4명 중 1명은 성인동영상을 본다는 통계보고가 있고 대부분의 네티즌이 불법 다운로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이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일 것이다.

물론 해당자가 술하게 많아 경찰입장에서도 엄청난 업무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미국에서 포르노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불법적인 콘텐츠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유보되기는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차에 이제는 영화 ‘해운대’의 다운로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관리감독기관의 감시가 소홀한 주말에 p2p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해운대’ 동영상 파일은 다운로드횟수가 이미 국내 10만건 이상을 기록했고 이를 받아 중국 등 해외에서도 유포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제작자가 입을 금전적인 피해는 막대해서 제작자들은 이래서야 누가 국내 영화를 만들겠느냐는 탄탄을 하고 있다. ‘해운대’는 개봉 33일 만인 지난달 29일 한국 영화로는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 돌파를 달성했고 해외도 수출되어 중국에서 개봉한 데 이어 미국과 동남아 등에도 진출할 예정인데 이런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영화산업은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맥을 못 추라는 지구상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프랑스의 국내 영화 점유비율

이 높다고 하지만 겨우 40%, 우리나라는 60%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만든 영화 ‘쥘리카 파크’는 현대자동차를 미국에 1년간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크다고 한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대중음악을 비롯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문화산업은 해외에서 그 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미지를 상승시킴으로써 관련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한류의 경우 베트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남주 주연의 드라마 ‘모텔’이 방영되면서 그 인기가 높아지자 김남주가 모델이었던 한국의 화장품의 판매가 급증했고 그 결과 세계적 화장품회사인 랑콤을 제치고 베트남 화장품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든지 한국 가전제품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게 된 것 등은 문화상품의 파급효과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관광산업 역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국문화상품-한류로 인한 동남아 관광객 유인효과로 인해 연간 약 100만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들이 지출하는 비용만해도 약 1천4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이 미국에 내다 판 철강의 수출금액보다 ‘포켓몬’등 만화영화와 관련 캐릭터의 수출금액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자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원본만 있으면 그저 복사해서 판매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문화산업 선진국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류 열풍을 계기로 저작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저작

권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되어 저작물 불법복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던 차에 우리나라 영화의 불법다운로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화산업의 만능적인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영화관도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러 편의 영화를 한 곳에서 선택, 편안히 볼 수 있는 멀티 플렉스 시설을 갖춘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오감으로 느끼는 영화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스크린을 통해 보는 것을 2D라고 하는데 비해 등장인물이 앞에 서있는 듯 입체감을 살리는 것이 3D, 장면에 따라 좌석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냄새까지 나오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 외부효과가 더해지면 4D라고 하는 데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극장들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요리사가 있는 극장도 있으니 세상의 변화는 실로 놀랍다.

그러나 아무리 영화관이 발달하고 영상물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해도 지금 이 세상의 계절보다는 못하다. 어두운 극장 스크린을 통해 보는 세상보다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이 바깥 세상이 훨씬 아름답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상이 있어야 e-세상도 있고 이 세상에서 즐겨야 e-세상에서의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다.

가을-이 좋은 계절, TV를 끄고 시원한 바람, 화창한 햇살이 있는 세상으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정 어렵다면 아쉽더라도 영화관에서 직접 표를 구입, 우리나라 영화를 즐기며 우리 문화산업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김선명



나락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네! 원주의 생명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무위당(無爲堂) 故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다. 지난겨울에 겹겹이 시작한 농농사를 지어 오면서 새삼 새기는 글귀이다. 처음 경험하는 벼농사는 과정마다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었다. 그 외경스러움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겸허하게 했다. 볍씨를 소독하여 물에 담근 지 사흘 만에 새움이 터 훑이 나오고, 이를 다시 모판에 옮겨 키워 20일 만에 모내기를 하였다. 태평농법을 한답시고 매일 새벽 좌선과 기도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

생장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나를 보며, ‘아찌졌어요? 천지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야지!’하며 천지자연의 조화 속에 순응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다. 8월에 찾아 온 늦더위 속 작열하는 햇볕과 고온다습한 남풍이 한없이 고마웠다. 폭풍 쪼는 날씨에 벼는 잘 자랐고, 어느 날부터인가 신기하게 벼이삭이 목을 내밀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삭은 하얀 꽃을 매달고 마치 군인들이 열병하듯 늠름하여 경외감과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나락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네

고 부지런히 논으로 나가 논두렁을 밟으며 모와 대화를 하였다. 쌀 미(米)자를 파자(破字) 해 보면 八+八이고 이는 여덟 팔 두 개를 합한 것과 같다. 이것은 농부가 여든여덟 번 논두렁을 밟아야 비로소 쌀이 된다는 뜻이란단. 벼농사의 경험도 전혀 없으니 사실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컸다. 그저 논두렁 밟는 일만은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나름대로 열심이었다. 무섭게 일어나는 잡초를 뽑기 위해 교도님들과 울력도 하고 혼자서도 몇 날 며칠 논고랑을 헤집고 다녔다. 논바닥에 물이 마를까 물꼬를 살피고 비가 오면 배수로로 잘 살펴 모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시로 할 일이었다. 논바닥에 물이 적어 마를라치면 양수기를 동원하여 물을 대고, 장마 기간에는 배수로를 열어 물을 빼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 이제는 벼충해와의 대면이었다. 제때에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자칫 실농(失農)할 수 있다며 살펴주는 농사의 달인인 교도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다. 잦은 비가 내린 7월에는 햇볕이 적어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찰벼는 노란 황금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정성을 다하여 빚은 작품을 가마에 넣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불을 다스려 구운 첫작품을 기다리는 도공의 심정으로 마치 막 벼농사와 태평교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펴보고 있다.

천지자연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나락 한 알에도 우주가 있다’는 말씀은 햇빛, 땅, 바람, 물, 농부의 땀 등은 우주가 힘을 합하여 공을 들인 결과라는 말씀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나락 한 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요, 우주 만물의 정성의 결정체이며, 우주 그 자체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결국 우주의 힘과 조화로 낳고 자라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다 각각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송규는 삼동운리(三洞雲理)를 밝히 주셨는데, 우주의 진리가 본래 하나이고, 우주 만물이 한 형제이며,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한 일터요, 세계사업이니, 자연과 인간, 나아가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하겠다. <원불교 영산교당 교무>

기고

스콧 알렌 디트로프



인커네이트 워드 대학(UIW) 학생 10명과 함께 광주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09 원어민초청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한국을 찾았습니

저의 한국과 광주에 대한 첫 인상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주와 광주시민에 대한 인상은 한층 더 긍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시청, 대학 및 광주시민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지원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시민들은 남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했습니다. 저와 저의 학생들은 매우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듯이, “연습하면 익혀집니다.” 저는 2주일 간의 캠프 기간 중 학생들이 이룩한 발전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도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지만, 잘못 말할까봐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언어에 숙달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시민들에 대하여 놀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시가 영어 교육을 위해 갖추고 있는 시설과 자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 어디에서도 광주시에서 본 것과 같은

잊지 못할 광주 영어캠프 학생들

제가 만나는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공동교사들의 의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교사로서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영어 캠프 프로그램의 일정도 완벽하였습니

다. 이로써 이 도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다른 문화(그리고 시간대)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 캠프 이전, 기간 중 및 이후에 우리가 방문했던 다양한 장소 및 행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한국의 맛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미 있는 장소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VIP 대접과 훌륭한 안내도 받았습니

다. 이러한 문화적 활동은 매우 교육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 스타일을 결합하면 서로를 매우 잘 보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고도로 발전된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 주제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은 학생들의 태생적인 수줍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어에 숙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영어 속담이 말하

시설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학습센터를 설립하는 광주시의 접근방법에서 상이한 학습 스타일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커리큘럼 자료가 있는 반면에 보다 시각적인 학습 접근방법도 역시 널리 중요시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교육은 분명히 매우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있으며 상당한 재원과 자원이 교육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광주의 여러 가지 인상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장황하게 썼습니다.

제가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국민과 나라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과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새 가족의 일부인 양 생각되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손님이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은 진정한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우리 학생들에게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

다. 저는 머지않아 광주에 다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 인커네이트워드대학 교수>

시설

지역민 기대 못미친 ‘9·3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충청 출신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세 번째이나, 최대폭의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사실상 MB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하는 셈이다.

이번 개각은 출신지역 안배를 통한 ‘화합·통합’에 방점을 둔 듯하다. 실제로 새 내각 진용은 총리를 포함해 영남권 5명, 수도권과 호남권 각 4명, 충청권 3명, 제주 1명 등으로 지역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또한, 충청권 출신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화합·통합’의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는게 솔직한 생각이다. 지난달 31일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지역출신이 전멸해 권력핵심부와의 소통 통로가 완전히 단절된 게 사실이다. 비록 이번 개각에서는 법무장관

에 장흥출신이 유일하게 입각했으나 내심 호남 총리를 바랐던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 4대 권력 기관장에 이어 경제부처에서도 광주·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 이번 개각을 두고 ‘무늬만 호남 배려’ ‘숫자놀음’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인사가 4개월여를 끌었음에도 전체적으로 측근 인물만 골라 쓰는 웅장한 인재풀의 한계를 못 벗었다는 점도 다소 아쉽다. 청와대 참모 개편에 이어 이번 장관 인선도 ‘그 밖에 그 나물’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특히 여권 내 지지기반이 전무하고 행정경험도 일천한 정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각을 장악하고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새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 갈등 봉합과 국민통합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 내에서 또다시 ‘호남 홀대’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서민·지방경제 챙기기에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무늬만 자전거 도로’ 개선 시급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발간한 ‘2009년 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건수는 220건에 달했다. 특히 사상자 수가 1년 전(63명)보다 58.7%나 증가한 100명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 사고 급증은 고유가와 ‘헬빙 붐’ 타고 이용자 크게 늘고 있으나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이 여전히 취약한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대부분 인도 위에 선을 긋고 자전거 그림을 그려놓은 수준이다.

실제로 광주시와 각 구청이 지난 4월 광주지역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인 418km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구간이 노면 파손과 단절구간 등으로 인해 자전거 타기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노면 정비가 필요한 곳이나 보도의 턱이 높아 자전거를 타기 힘든 단절구간도 197

곳이나 됐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당국의 사후 관리도 소홀하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주행할 수밖에 없다. 관련 교통법규도 미비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대대적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까지 전국에 5천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도 내놓았다.

그러나 자전거 활성화는 일회성 캠페인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꾸준한 인프라 구축과 법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자전거는 레저이기 전에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전거 활성화가 전이행정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기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無 等 鼓

전염병에 관한 퀴즈 하나. 일본과 쿠바 중 홍역 발병률이 더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예상을 깨고 일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진국인 일본이 후진국 쿠바보다 전염병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발병률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의료전문가들에 따르면 예방접종률이 95%를 넘으면 해당 전염병이 유행할 수 없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예방접종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95%를 넘는다. 하지만 일본은 국민부담부분이 크고 ‘안티 백신운동’의 영향으로 예방접종률이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홍역 등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면서 다른 전염병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특히 A형 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최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예방백신이 동나 병원에 예약을 하고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 A형 간염은

다른 간염과는 다르게 수인성으로, 쉽게 전염되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형 간염은 10~30대 대부분이 항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집단적인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방접종이 본인부담으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어린이(2회 접종)는 8만 원, 청소년이상은 16만 원이 든다.

또, 여성 암 발병순위 5위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최근 백신이 개발돼 청소년기에 접종을 하면 90% 정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여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접종이지만 현재는 1인당 최소 45만원(3회 접

종)이 든다.

지금과 같은 예방접종 체계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전염병 예방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하겠지만 더불어 국가가 관리하는 예방접종항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일환여론매체부장 kih8@

접종 유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 F A X 222-8005 >	문화홍보국 2200-541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 F A X 222-0195 >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69	< F A X 227-9500 >	독자서비스국 2200-561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93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227-9500 >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 F A X 02-773-9335 >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